

‘제15회 보길 윤선도 문화축제’ 내일 개막

청벌리 물양장·윤선도 원림 일원 공연·체험 다채
세연정 탐방로서 사진전…전복 등 특산품도 판매

‘제15회 보길 윤선도 문화축제’가 24일~25일 양일간 보길도 청벌리 물양장과 윤선도 원림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체육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공연 프로그램은 24~25일(오후 7~9시) 이틀 동안 청벌항 특설 무대에서 가

죽 콘서트 및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24일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가인과 걸그룹 바바, 25일에는 송대관, 리틀 싸이 등이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선사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울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또한 문화해설사와 함께 세연정까지 함께 걸어보는 ‘보길도 세연정 걷기’와 ‘오행시 짓기’, ‘천연 비누 만들기’, ‘손

글씨 써주기’, ‘보길도 세연정 음악 여행’,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보길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이에 세연정 탐방로 일원에서는 지역 주민 작가들이 참여한 보길도 유적지와 자연을 담은 사진전을 열어 고산 윤선도의 일과 보길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면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4개 마을에서 참여하는 체육 행사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홀라후프 대회, 팔도사투리 대회, 특산품 짬작 경매, 나도 가수다 등이 열린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코너를 통해 신선한 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도 있다. 보길 윤선도 문화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보길 윤선도 문화축제는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축제”라며 “축제도 즐기고 보길도에는 울창한 예송리 상록수림과 공룡알해변, 중리해수욕장 등이 있으니 보길도의 매력을 한껏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정보는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보길면사무소(061-550-6622)로 하면 된다. /완도=윤보현기자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나주시 등과 합동으로 관내 교통사고예방 시설물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경찰,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대폭 개선

市·도로교통공단과 관내 55개소 지속 보완 추진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나주시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예방 시설물 개선에 적극 나섰다. 2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개선 활동을 추진해 ‘스쿨존 위험시설물 철거’, ‘도심 속도 30km/h로 하향’, ‘교통단속장비 보강’, ‘불합리한 신호주기 조정’, ‘교통사고 반복 장소 시설물 설치 및 보강’ 등 55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 중이다. 나주경찰서는 시 금성동 소영어린이집 앞 시설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고질적인 사고다발 지점에 대해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와 협조하고 있다. 또한 가로수 제거 및 시설물 이설과 철거를 완료해 운전자 시야 확보를 용이도록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나주경찰서는 시 도심시 33개 구간(14km)에 대해 기존 60km/h이던 것을 30km/h로 속도를 하향 완료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평산동의 커브 지점의 충격흡수시설의 충격 등 교통사고 위험 민원 빈발에 따른 철거 조치와 나주버스터미널 앞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와 횡단보도 및 차량 유도선 설치 등도 실시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동수능공단지 교차로, 혁신산단 교차로, 석전교차로에 대한 물류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신호주기를 조정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산단의 진출입로에 대한 원활한 물류수송을, 교통 시설물 개선 및 보강을 계속 추진키로 하고 교통사고 위험 개소에 대한 시민 의견들의 수렴과 병행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신안, 벼 ‘소식재배’ 기술논길
노동력·생산비 줄고 농가소득 ↑

신안군의 벼 소식재배 기술이 논길을 끈다. 신안군은 22일 “최근 비금면 도고리 일원에서 벼 재배 농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벼 소식재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벼 육묘 및 이앙에 필요한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벼 소식재배는 육묘상자에 뿌리는 볍씨의 양을 250g 내외로 밀파해 어린묘의 밀도를 높이고 포기당 3~4본씩을 3.3㎡당 50주를 심어 모판 개수를 1/3정도로 줄이는 기술로 모판수, 육묘공간, 육묘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식재배의 신안 지역 재배 안전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식 재배 기술의 확립과 현장 보급을 확대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강진군, 도시민 대상 팜투어 강진군이 최근 광주지역 도시민 30명을 초청해 이틀간 귀농 팜투어를 진행했다. 팜투어 체험단은 백운동 벼서정원과 하멜기념관, 사의재 등 강진의 명소를 탐방했다. 또 귀농인이 운영하는 무농약 바나나 농장을 방문해 강진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성공사례를 직접 듣는 등 예비귀농인으로서 유익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무안군, 인구문제 극복 ‘브라운백 미팅’ 호응

청년공무원과 토론…어울림 센터 조성 등 제시

무안군이 인구 정책을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은 22일 “최근 무안을 소재 카페에서 저출산 극복, 인구 고령화 등 청년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샌드위치를 싸는 갈색봉투’라는 말에서 유래된 브라운백(brown-bag) 미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샌드위치나 간단한 스낵류를 함께 먹으며 다양한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회의 방식이다.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가운데 ‘인구를 늘려라’라는 숙제는 이제 선택

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브라운백 미팅은 인구 정책에 있어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청년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청 입사 새내기부터 10년차 미만 30여명의 청년 공무원들이 참여해 딱딱한 군청 사무실을 떠나 카페에서 청년의 눈높이 맞게 인구 정책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무안 지역에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 건립, 재테크 강좌, 좋은 부모 되기 교육, 행정·체육시설·아동 돌봄

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센터 조성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책 선물도 받고 다른 부서의 또래친구들과 함께 그룹 미팅을 가져 신선하고 유쾌하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제 자녀의 아버지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취직 전 취업 문제, 연애, 결혼, 주거, 출산, 육아 등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공감한다”며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내편이 있어야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무안=전양태기자

영광경찰,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영광경찰서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 축제, 행사장 등을 방문,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치매노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상황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 신속히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제도다.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전지문등록 아동, 노인 대상 기관의 방문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영암소방서, 폭염피해 예방 당부

열경련·열실신·열피로 등 증상 시 119 신고

영암소방서가 지난 15일부터 최고 온도가 33.1도를 기록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자 온열질환 주의보를 발령,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폭염주의보의 유효 단계인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가동된다. 올해도 지난해 버금가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올 여름 온열질환에 특히 주의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온열질환에는 열경련(heat cramp), 열실신(heat syncope), 열피로(heat exhaustion), 열사병(heat stroke) 등이 있다. 박주익 영암소방서장은 “아이들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체력이 낮아 특히 위험하므로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이봉영기자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